

청소년기 부모재혼을 경험한 성인 자녀들의 의붓형제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배 동 신

계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이 아 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BK4 program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재혼을 겪은 성인자녀들이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의붓형제를 만나게 된 재혼가족 성인자녀들 8명을 만나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혼가족 성인자녀가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경험에 관한 현상은 총 6가지의 범주와 15개의 주제묶음, 43개 주제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움’, ‘이전에 없던 갈등요소가 생김’, ‘형제가 생겼지만 온전한 내 편이 아님’의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처 경험은 ‘갈등에서 비켜서기’,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 ‘한 단계씩 찾아가는 ’진짜 형제‘의 자리’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 성인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에 관한 현상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담 현장에서의 개입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재혼가족, 의붓형제 관계, 대처경험,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배동신(2022)의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혼가족 성인 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아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BK4 program,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151동

Tel: 055-772-1267, E-mail: dreammaker@gnu.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구화로 인해 가족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이혜원, 주영아, 2020). 전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는 결혼생활의 갈등해결 방법에 있어 이혼이라는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서미정, 김병석, 2019).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천 명 당 이혼 건수)을 살펴보면 1996년에는 1.7명이었지만 점차 상승하여 2020년에는 2.1명으로 과거에 비해 이혼 가정이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1).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재혼의 증가와도 관련이 되는데, 1980년 전체 결혼의 5.9%를 차지 하였던 재혼은 2019년에는 27.8%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결혼한 4쌍 중 1쌍 이상이 재혼 부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이다(통계청, 2020).

재혼은 초혼과는 다르게 이혼 또는 사별과 같은 구성원의 상실로 인해서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며, 각자 다른 가족경험과 주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결합은 가족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김다애, 조은숙, 2019).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부모, 형제자매가 생기면서 재혼가족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가족관계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 재혼가족은 적응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생활주기의 불일치, 계자녀와 비동거 친부모의 존재, 그리고 복잡한 친족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연옥, 2007; 김효순, 엄명용, 2007). 또한 재혼가정은 이혼으로 인

한 가족해체 경험이 부정적 가족 전이를 일으킬 위험성은 높은 반면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Gonzales, 2009; Gosselin & David, 2007).

이러한 재혼가족의 특성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은 재혼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동반된 재혼가족의 경우 취약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제언된다(김효순, 2006). 가족해체를 경험한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혼이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고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로 인식하기도 한다(Portnoy, 2006). 재혼가족 자녀들은 새로운 가족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혼란과 상실감, 심적 고통 등을 호소하기도 하며, 새로운 가정에 소속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삶의 위기를 직면하기도 한다(김형민, 이은경, 2016; 구자경, 2016; Dunn, O'Connor, & Cheng, 2005; Crosbie-Burnett & Giles-Sims, 1994). 또한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이혼한 부모들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는데, 재혼 이후 이 환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큰 실망감을 안게 되어 재혼가족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더 낯설고 두렵게 느낄 수 있다(Skeen, Covi, & Robinson,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특성에 기반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체 이혼의 42.3%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이고, 자녀가 동반된 재혼가족의 형태가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통계청, 2021) 역시 재혼가족에서의 자녀들의 경험에 관심을 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재혼 후 새로운 가족 안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부모보다 더욱 오래 관계를 맺는 관계이자,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수평적 인간관계의 원형이 형제관계라는 점(Adler, 2009)을 고려한다면 재혼가족 자녀의 형제관계 역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형제자매가 그들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김인정, 2017)고 강조해왔다. 형제자매는 역할 모델, 친구, 경쟁자 및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며(McHale, Updegraff, & Whiteman, 2012), 다툼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협상·설득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이다(Dunn, 2007; Howe, Rinaldi, Jennings, & Petrakos, 2002). 긍정적인 형제관계는 지지, 편안함, 사회적 기술의 습득, 자신감과 자존감, 동맹, 위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Plewes, 2002), 성인으로 성장한 뒤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분리 개별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협력적 행동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Bank, 1997).

이처럼 중요한 형제자매의 관계는 재혼가족의 자녀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즉,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새로운 형제자매의 관계가 앞으로의 이들의 성장과 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혼가족 자녀의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의붓형제에 대한 관심은 재혼가족의 다른 관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도 많지 않아(김연옥, 2014)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형제자매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모의 재혼을 통해 형성된 형제자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에서의 취약성을 보호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필요성을 가진다.

한편, 재혼가족의 경우 배우자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단순재혼가족에 비해 배우자 양쪽 모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복합재혼가족이 자녀적응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되기도 한다(김효순, 하춘광, 2010). 이처럼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새부모의 자녀와 한 형제가 되는 경우를 의붓형제라고 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혼가족 자녀들은 의붓형제가 있는 경우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윤주애, 2002), 재혼 가족생활을 적응하는데 훨씬 더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김유나, 2010). 의붓형제는 명확한 규범과 기대의 부재로 인해 생물학적 형제와의 관계보다 더 갈등이 심할 수 있다(김인정, 박승민, 2019; 지승희, 오혜영, 이현숙, 2012; Cherlin, 1978). 형제관계 내에서 지배와 강요, 다툼, 사랑과 인정, 능력과 성취 등에 대한 비교와 평가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 역시 친형제보다 의붓형제 관계에서 더 많이 보고된다는 연구(White & Riedmann, 1992) 역시 재혼가정 자녀의 의붓형제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재혼가족 자녀의 의붓형제 간 관계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자녀의 새로운 형제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김인정, 박승민, 2019). 현재까지의 국내 재혼가족 자녀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자녀와의 관계(김다애, 조은숙, 2019; 김효순, 2016; 박선영, 2015; 우현주, 2012), 종교적 관점에서의 재혼가족 적응 경험(김형민, 2015; 조고은, 2011) 등 재혼가족 자녀들의 삶의 전반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재혼과 관련한 연

구의 동향을 살펴본 이은영과 김수진(2021)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기 재혼자녀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으며, 그 내용 역시 전반적인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혼자녀의 전반적인 적응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적응요인과 부적응요인을 발견하는 것에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의붓형제 관계처럼 구체적인 관계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중 의붓자녀와 관련된 연구(김유나, 2010)와 재혼가족 이복자녀 연구(김인정, 박승민, 2019)가 있지만 이 연구들 역시 특정 종교 관점 안에서의 대처방법을 살펴보았거나, 재혼가족 안에서의 삶 이후 현재의 생활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의 형제관계는 의붓형제가 아닌 이복형제라는 점에서, 의붓형제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경험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혈연중심의 가족이 이상적인 형태로 여겨져 온 문화의 경우(백광렬, 이상직, 사사노 미사에, 2018), 재혼이나 의붓형제 관계처럼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혼가족 자녀의 의붓형제 관계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뿐 아니라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려움에 대한 접근은 어려움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김종경, 양영희, 2011)에 기반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의붓형제 관계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으나,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의붓형제가 생겼더라도 형제관계를 긍정적으로 지

속하고 있는 자녀들도 매우 많다. 의붓형제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재혼가족 전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Anggita, Widayanti, & Dewi, 2021),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게 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은영, 서영석, 2012). Anderson(1999)은 의붓형제가 있는 사람은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즉, 재혼가족 자녀들이 긍정적인 의붓형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들의 대처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 의붓형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과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 재혼과 관련하여 해당 과정에서의 과거 경험과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하기에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변복수, 박승민, 2015)과 재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탐색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성인기 자녀가 더 적절하다고 본 연구(우현주, 2012)를 고려하여, 청소년기 부모 재혼을 경험하였지만 현재는 성인이 된 자녀를 대상으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재혼가족 연구의 한계점과 의붓형제 관계의 중요성을 토대로 재혼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재혼가족의 대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재혼가족의 부부, 부모-자녀의 갈등대처에 관해 연구되었기 때문에(권혁출, 2014; 박희정, 변상해, 2017; 윤주애, 2002), 본 연구에

서 이해하는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 재혼가족의 경험을 이해하는 관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혼가족의 증가에 따라 의붓형제와 관련한 상담적 개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혼가족 자녀 상담에 직접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 성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둘째, 재혼가족 성인 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 어려움의 대처경험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재혼가족 성인자녀들의 의붓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표본추출에 있어 적절성과 충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8명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정에서 의붓형제와 2년 이상 함께 자란 자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 자녀들의 어려움과 더불어 대처경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적응하려고 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응기간을 거친 참여자를 선정하려 하였다. 이러한 적응기준의 결정에는, 재혼가정의 적응에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년 이상의 생활을 했을 때 적응 노력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 선행연구들(김형민, 이은경, 2016;

김효순, 2012; 변복수, 2014)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둘째, 부모 재혼 시 자녀의 나이가 만 13~19세의 청소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달하면서 가족으로부터 개별화하고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한다. 또한, 청소년기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박진희, 박지선, 2016) 이 시기에는 관계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의붓형제의 존재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권예원, 2017; 김형민, 이은경, 2016). 따라서 청소년기 의붓형제와의 관계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실질적인 갈등이 무엇이며, 그 갈등에 따른 심리적 경험이 어떠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현재 연구 대상자는 재혼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으며, 20대 성인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가족에 관한 심층 면접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수 있기에(김형민, 이은경, 2016; 양성은, 2008), 가족해체와 갈등이 포함될 수 있는 면담의 내용을 진행하는데 있어 성인을 참여자로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인초기는 사춘기를 겪고 난 후로 긴장관계에 놓였던 부모-자녀관계를 해소하고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정현숙, 유계숙, 2001),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의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성인자녀 연령을 20대로 범위를 잡은 것은 Erikson의 성인기(20~35세) 단계와 동시대 집단효과(cohort effect)의 영향(변복수, 2014)을 고

려한 것이다.

넷째, 형제자매관계 척도(장휘숙, 2009)의 점수가 3.1 이상인 자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 의붓형제간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처경험을 살펴보고 실제적 상담 개입을 돕는 것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의붓형제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에 잘 대처하여 현재는 의붓형제 관계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측정도구가 없어 관련 선행연구들(남상은, 2020; 장휘숙, 2009; 장휘숙, 2009)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결정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친형제자매의 관계의 질을 측정한 것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3.1이었다. 본 연구자는 의붓형제와의 관계의 질이 친형제자매의 관계의 질의 평균 이상일 때, 이들이 현재 의붓형제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에 도달한 것이라 가정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 과정을 거친 참여자는 총 8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8세였고,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이었다. 의붓형제 수는 적게는 한명에서 많게는 4명이었고, 의붓형제 외에 형제가 있는 경우가 6명, 없는 경우가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정보

참여자 번호	나이	성별	직업	재혼당시 (참여자) 나이	의붓형제 동거기간	의붓형제 (나이)	친형제 (나이)	출생순위 변화	형제관계 척도평균
1	23	여	대학생	19	2~3년	남동생(14), 여동생(11)	남동생(20)	동일	3.3
2	21	여	대학생	18	3년	여동생(18)	남동생(19)	동일	3.2
3	22	여	대학생	17	3년	오빠(28), 언니(25), 남동생(20), 여동생(18),	언니(27)	막내->넷째	3.2
4	24	남	대학생	18	2년	남동생(24)	여동생(22)	동일	4.0
5	21	여	대학생	14	8년	오빠(25)	-	외동->막내	3.9
6	20	여	대학생	14	9년	언니(22), 남동생(20)	-	외동->둘째	4.3
7	22	여	대학생	16	6년	오빠(29), 오빠(26)	오빠(33) 쌍둥이 동생(22)	둘째->넷째	3.8
8	26	남	취준생	19	3년	여동생(24), 여동생(21)	형(30)	막내->둘째	4.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한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2021년 7월에서 9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방음이 가능하고 주변의 방해가 받지 않는 개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도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평균 60~90분 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를 만나 인터뷰하기 전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면담 자료의 명확성을 위해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참여자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 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면접지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접 질문지는 권예원(2017), 김효순과 하춘광(2010), 변복수와 박승민(2015)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 후 사전 예비연구를 거쳐 심리학과 교수 1인에게 전문가 감수를 받아 확정하였다(표 2). 사전 예비연구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5

명에 대한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연구 분석을 통해서 최종 면접 질문을 확정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심층 면담 후 녹음한 진술들은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와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나 현상을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하게 기술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박경례, 박재연, 2021).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Giorgi

표 2. 면접 질문지

질문내용
1. 부모의 재혼 이후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부모의 재혼 이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경험은 어땠나요?
1) 새로 만난 의붓형제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2) 의붓형제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①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②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또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3. 의붓형제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4. 의붓형제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였나요?
1)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었던 요소는 무엇인가요?
2) 어려움 극복에 방해가 되었던 요소는 무엇인가요?
5. 대처과정을 통해 의붓형제 관계에서 변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의 기술현상학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의 과정을 따랐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 진술에서 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전체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 진술을 통해 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자 개인의 진술에 가장 중점을 두어 그들의 개개인의 경험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개별적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김영진, 2016). 본 연구에서는 Giorgi(1985)가 제안한 다음의 4단계의 분석 과정을 따랐다.

첫 번째는 전체 인식 단계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더욱 초점을 두면서 심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제를 구별해 내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계속해서 읽으며 처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뒤 주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구분이 되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주제를 나누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세 번째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나누어진 주제를 조합하여 주제화시킨 후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변형시켰다. 네 번째는 이렇게 변형된 주제들을 일관성 있는 구조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주제들을 종합하여 연구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서술하였다.

연구자의 준비도 및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성향과 편향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과 가치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Patton, 2015). 본 연구자는 5남매 중 셋째로 자랐다. 이는 또래들과 비교하여 매우 많은 형제자매의 수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형제자매 사이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뢰와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한 개인의 삶에서 형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형제자매 관계의 새로운 출현과 변화가 개인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종교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재혼가정 자녀들과 그로 인해 새롭게 형제들을 만나게 된 자녀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혼가정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지난 경험들을 통해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만나기 전부터 서로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갈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선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연구 시작 전 단계부터 감수자와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편견이 연구 전 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원 교육과정 중 연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수강하였고, 질적연구 워크숍을 다회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담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자료분석에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5회 이상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감수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총 3번에 걸쳐서 분석과정에 대해 감수 받았고, 연구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논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과 분석 결과는 상담전공 심리학 교수 1인에게 15번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자는 질적연구 수행 및 감수를 10번 이상 한 경험이 있으며,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수정 내용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경험’ 영역의 범주들이 대처 방법이 아닌, 대처 결과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수정요청에 따라 참여자들의 대처 방법이 더욱 생생히 느껴질 수 있도록 범주 이름을 수정하였다. 또한 분석을 마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본인의 인터뷰 내용과 분석결과를 보내 참여자 감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 중 자료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의 엄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4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붓형제를 가진 재혼가족 성인자녀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혼과 관련된 연구들을 참고하여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충분히 고민하여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학 교수와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의 과정과 결과 및 해석에서 자신의 선입견에 대해 괄호치기(bracketing)를 통해 판단을 유보하였으며, 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일 때 배제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G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GIRB-G21-Y-0022).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 목적과 방법, 인터뷰 녹음, 개인정보 보호, 추후 연구 자료의 폐기 등이 담긴 연구동의서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 참여자에게 불편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기와 부모의 재혼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 과

연구의 참여자들이 재혼가정에서 의붓형제와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경험은 Giorgi의 분석방법에 따라 43개의 주제, 15개의 주제묶음, 6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은 총 3가지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7개의 주제묶음을 통하여 재혼가족 성인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 어려움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였다. 재혼가족 성인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경험은 총 3가지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8개의 주제묶음을 통하여 재혼가족 성인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경험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주제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Giorgi(1985)가 권고하였던 대로,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사례들을 상황과 함께 기술하는 상황적 구조기술과 모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일반적 구조기술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한 상황적 구조기술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의 구체화된 주제, 주제목

음, 범주는 표 3과 같다.

범주 1: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움.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움 범주는 참여자들이 부모님의 재혼이라는 환경에서 기인한 새롭고 낯선 가족과 어색한 의붓형제 관계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다. 이 범주는 ‘새로운 형제가 낯설고 어색함’, ‘다가가고 싶어도 벽에 부딪힌다고 느낌’ 이라는 두 가지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

범주	주제목	주제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움	새로운 형제가 낯설고 어색함	남과 갑자기 같이 사는 느낌이 듦
		생활방식을 맞추는 것이 낯설음
		의붓형제를 주변에 밝히는 것이 어색함
	다가가고 싶어도 벽에 부딪힌다고 느낌	함께 살지만 대화할 시간이 없어 친해지기 어려움
		의붓형제와 공통된 관심사가 없다고 느낌
이전에 없던 갈등요소가 생김	새롭게 형성되는 삼각관계	다가가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음
		부모가 의붓형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 스트레스 받음
	가진 것을 나누고, 자리를 넘겨주고	의붓형제와의 사이에 부모가 개입해 갈등이 생김
		내 물건과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됨
		상대적으로 차별대우 받는다고 여겨짐
형제가 생겼지만 온전한 내 편이 아님	의붓형제와의 사이에서 눈치를 봄	가족 내 위치가 변화되어 혼란스러움
		내 존재가 의붓형제에게 피해가 되는 느낌
		의붓형제가 나를 싫어할까 살피게 됨
	남의 편 속에 있는 듯한 외로움	불편한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함
		의붓형제가 편 가르기 한다고 느낌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남	의붓형제 간의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낌
		의붓형제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음
		성격이 달라 갈등이 생김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늘어남

새로운 형제가 낯설고 어색함.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의붓형제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낯설고 어색함을 느끼고, 가정 안과 밖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남’과 갑자기, 때로는 하루종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작은 생활방식도 맞춰가야 하는 과정 역시 낯설었다. 또한 어느날 갑자기 ‘형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하기 조심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냥 요기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여기 딱 앉혀 놓으면 어색할 것 같지 않으실까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예를 들어 강의실에서 옛날에 같이 수업을 들었지만 말 한 번 안 섞어본 과 동기가 그냥 말 한두 번 섞어본 과 동기가 있는데 갑자기 두두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그럼 이제 안녕 밥 먹었니? 밥 먹으러 간다던데 뭐 먹고 싶어?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첫 대화 이런 느낌이죠.” (참여자 4)

“우리 집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하자 그 집 친구들은 약간 천천히 천천히 그냥 뭐 나중에 나중에 다 순리대로 되게 돼 있어 약간 이런 느낌. . . . 예를 들어 우리집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했으면 바로 치우는 게 이제 공용 공간의 사용에 있어서 좋아! 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데 이제 이 친구(의붓동생)네 가정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 . . 십몇 년 동안 이제

형성되어 온 생활양식이 너무 다르고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같이 쌓아온 기준이 없으니까.. .” (참여자 4)

“집에서 동생이랑 있다고. 누군데 여동생? 또 남동생도 있다 하지 않았어? 개 이름이 뭐야? 이러면 성이 달라요. 전 박 씨고 동생은 김 씨거든요. 하면 어...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어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 . 당당하게 부모님 재혼하셔가지고 재혼 동생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제 말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다가가고 싶어도 벽에 부딪힌다고 느낌.

연구 참여자들이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또 다른 어려움은 해당 관계에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가까워지지 못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에 있었다. 특히 부모의 재혼 시 청소년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의 부족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공통적 관심사가 없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의붓형제와 친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또한 나름의 방법으로 의붓형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응이 없거나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 ‘관계가 벽에 부딪힌다’고 느끼고,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저녁을 같이 못 먹으니까 좀 마주치는 일도 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들 때문에 좀 마주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오빠랑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친해지면 좀 친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럴 시간들이 없어서 못 친해졌던 거...” (참여자 7)

“(의붓)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챙겨주고 학원을 같이 간다고 할지언정 서로의 관심사와 공통점이 너무 달랐던 게 그 친구는 게임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pc방에 가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화장이나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서로 관심사가 같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은 자리로 발전하지 못했던 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되어서 중학교 때 또 그렇게 멀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장애물이었던 것 같고..”. (참여자 6)

“(의붓남동생과) 터놓고 그냥 편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도 약간 피하는 거 같고. 그래서 둘 다 일단 낮을 가리지만. 내가 가끔 낮을 벗어던지고 가도 약간 이 친구가 약간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라... 밥 먹고 별말 안 하면 밥을 이제 그냥 적당히 먹고 서로 그냥 적당한 이야기를 하고 빠이 빠이를 하는데, 제가 뭔가 말을 막 걸면 이 친구가 밥을 빨리 먹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여자 4)

범주 2: 이전에 없던 갈등요소가 생김. 이전에 없던 갈등요소가 생김 범주는 부모님의 재혼 전에는 겪지 않아도 되었던 갈등요소를

재혼 후 의붓형제 관계로 인해 겪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붓형제와의 관계는 단순히 형제와 관련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물질, 정서적인 교류의 소유와 공유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범주는 ‘새롭게 형성되는 삼각관계’와 ‘가진 것을 나누고, 자리를 넘겨주고’라는 두 가지 주제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삼각관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의붓형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보고하였다. 부모가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또한 부모가 의붓형제에 대한 불만을 참여자에게 이야기 하는 경우 이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의붓형제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친부모 혹은 새 부모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관계 갈등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부모와 의붓형제와의 관계, 혹은 의붓형제와 자신의 관계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될 때, 의붓형제와의 어려움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엄마가 (의붓형제에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하셨어요. 그걸 보는 게 또 스트레스였죠... 막 엄마가 막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걸 표현을 하는 걸 듣는 사람은 저거든요. 이제 오빠는 어차피 집에서 나가고 없으니까 제가 거의 주로 붙어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듣는 사람이 저니까 그게 이

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은 저도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돌고 도는.” (참여자 5)

“(의붓)오빠가 또 내 옷 입고 나가서 왜 그러냐 오빠한테 따지러 가면, 오히려 엄마가 괜찮다고 이렇게 말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죠. 엄마도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았죠.” (참여자 7)

가진 것을 나누고, 자리를 넘겨주고. 참여자들에게 의붓형제가 생긴다는 것은 가족 내에서 ‘많은 것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형제자매 사이의 출생위치가 어떠한지는 부모 관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긴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공유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위치와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2, 6 같이 외동이었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생긴 경우에 의붓형제의 출현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때로 ‘빼앗기는 느낌’을 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물건, 용돈, 나아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까지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붓형제는 환영할 만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 3, 5, 6, 7, 8의 경우 의붓형제로 인해 출생순위가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역시 역할의 혼란뿐 아니라 ‘나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의식주가 가장 연관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제 물건. 일단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제 물건을 빼긴다는 기분이 들었던 게 제가 외곽에서 시내로 오면서 둘이 살다가 다섯이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 방이 두 개밖에 없는 거를 언니랑 저랑 같이 쓰고 남동생은 혼자 쓰게 하면서 남동생에게 제 침대도 줘야 했고 책상도 줘야 했고. 하면서 뭔가 제 것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던 것들을 세 명에게 나눠서 분담하게 되니까 굉장히 빼긴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참여자 6)

“(의붓)오빠들은 밤늦게 들어와도 잘 터치를 안 하는 반면 이제 저나 제 동생이 늦게 들어오면 되게 많이 뭐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빠는 왜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들한테만 그러냐... 오빠한테도 엄마가 휴대전화도 사주려고 하시고. 아무래도 새 아들이다 보니까 좀 잘해주시려고 하는 반면에 저희한테는 해주고 싶었겠지만은 또 잘 해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는 사준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면서 왜 우리한테는 사준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참여자 7)

“제가 막 항상 맏이였다가 오빠가 생기니까 어색한 것도 좀 있고. 처음에 이제 오빠라는 말을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한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면 이제 저는 오빠가 생겼잖아요. 그럼 오빠를 좀 반가워하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할머

니한테 제일 큰 손주가 저라고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오빠가 하게 되나... 그 자리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아니라 오빠가 맡게 되면 그게 너무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말이에요.” (참여자 5)

“되게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외동이야 아니면 형제 자매 있어? 이러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분명 외동이었는데 형제 자매가 또 생기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0년을 넘게 외동으로 자라왔는데 너 진짜 막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에게 막내 같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외동 같아 이런 얘기도 이제는 조금 괴리감이 드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외동으로 자란 건가? 막내로 자란 건가? 둘째로 자란 건가? 라는 혼란스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범주 3: 형제가 생겼지만 온전한 내 편이 아님. 형제가 생겼지만 온전한 내 편이 아님 범주는 의붓형제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많은 갈등과 그로 인한 위축감, 분노,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의붓형제가 생겼지만 그 안에서 ‘내 편’, ‘내 사람’이라는 경험을 쉽게 하지는 못하였다. 이 범주는 ‘의붓형제와의 사이에서 눈치를 봄’, ‘남의 편 속에 있는 듯한 외로움’,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남’ 이라는 세 가지 주제묶음을 담고 있다.

의붓형제와의 사이에서 눈치를 봄.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재혼 후 의붓형제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의붓형제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보다 자신의 존재가 의붓형제에게 환영받지 못하거나 의붓형제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지 걱정하였으며, 의붓형제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거리감과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리감은 의붓형제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하였으며, ‘친형제였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도 참게 만드는 등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관계 맺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저는 남동생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동생은 이제 그 고향에서 계속 자랐단 말이에요. . . . 남동생은 되게 자기 고향에 애착이 강해요. 애착이 강한테 약간 개가 피해 받는 느낌? 저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컸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걸림돌이 된 느낌...? . . . 그냥 갑자기 원치도 않는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엄마를 빼고는 그러니까 애도 그렇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참여자 3)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시비 거는? 그냥 근데 그 시비도 크게 막 그런 문제는 있는 시비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찼 남매였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비. 그런데 이게 찼 남매가 아니라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애가 많이 나를 좀 싫어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로 나를 그렇게 안 보고 싶어 하나 이런 느

낌?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켜 남매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친동생이었으면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막 하거나 더 세게 혼내거나 좀 그럴 수 있었겠죠. 사실 지금은 여동생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상처를 깊게 받으면은 그런 마음의 벽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참여자 8)

남의 편 속에 있는 듯한 외로움.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의붓형제는 ‘당연히 내 편인 내 형제’이기보다는 ‘내가 쉽게 껴들 수 없는 남의 편’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형제가 새롭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의붓형제와 한 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의붓형제가 둘 이상인 경우 의붓형제가 한 편을 먹고 자신은 상대 편이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고, 의붓형제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이 마치 자신은 그 관계에 끼 수 없음을 말하는 듯 느끼기도 하였다. 형제지만 내 편이 아닌 의붓형제와의 관계는 형제관계가 없을 때 보다 더욱 큰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언니랑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언니는 아무래도 남동생이랑 10년 전에 같이 해 온 친형제이기 때문에 자기 남동생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저는 세 명이서 한 형제가 되고 싶지만 뭔가 둘 하나로 나눠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중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의붓형제)의 한 마디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날 뻔했

는데, 분명하게 저는 남동생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언니가 와서 저를 더 뭐라고 하고 자기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언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 보다는 남동생 편을 들고 싶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제가 원래 외동이었는데 형제들이 생기면서 그게 되게 기대되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한 번 더 버림받은 느낌이랄까... 나는 이제 3남매가 되겠구나 라고 되게 좋았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둘 하나로 갈라지는 모습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또다시 혼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남. 때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붓형제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낯선 의붓형제의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와는 맞지 않는’ 의붓형제를 만났다는 사실은 청소년기였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정이 너무나 소비되는’ 불편함을 유발하였다. 의붓형제와의 잦은 갈등과 마찰은 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좌절, 답답함 등의 다양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일탈이나... 하지 말라는 행동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 꺼림직하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바르게 자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그 친구는 재혼을 받아들일 때 또 약간 일탈

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저한테 많이 보여줬고 . . . 이게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참여자 6)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추억을 더 쌓고 얘기라도 한마디 더 하고 해야 밋 든 싫든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같이 모이고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의붓형제에게) 말을 해도 그게 와 닿지 않나 봐요. 여동생들은. 그래서 계속 방에만 들어가 있고 그랬었죠. 그냥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 했는데 . . . 정말 답답할 때는 내가 왜 지금 엄마가 재혼을 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렇게 안 좋은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경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경험의 구체화된 주제, 주제묶음, 범주는 표 4와 같다.

범주 4: 갈등에서 비켜서기. 갈등에서 비켜서기 범주는 참여자들이 의붓형제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대처하기보다는 한걸음 떨어져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대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는 ‘갈등상황을 멀리하고 거리를 둬’, ‘참고 버티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라는 두 가지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갈등상황을 멀리하고 거리를 둬. 참여자들

이 의붓형제와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사용했던 대처 중 하나는 바로 ‘굳이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 자신과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의붓형제라면, 부딪히기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일도 적고, 같이 있는 시간을 없애면 갈등도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의붓형제관계에서 친밀함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서 해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였다.

“거리감이 생겼다라기 보다는 거리감이 안 없어졌다? 어찌됐든 간에 둘 간에 이제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관계 이제 진전이 있는데 제가 바쁘게 다니면서 관계 진전을 안 시켰죠 . . . 그냥 적당히 거리두기를 시전한 느낌이 있다. 어색함을 이겨내려는 시도보다는 어색함과 멀어지려는 시도를 많이 했죠.” (참여자 4)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제가 집에 있었을 때 그 스트레스를 다시 받을 거 같아서 그냥 아예 집을 자주 안 가게 됐죠.” (참여자 1)

참고 버티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 참여자들이 의붓형제와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용했던 또 다른 대처는 ‘버티는 것’이었다. 이들은 갈등상황이 드러나고 표면화되는 것이 자신과 의붓형제 뿐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가족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면에는 갈등을 드러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표 4. 재혼가족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경험.

범주	주제묶음	주제
갈등에서 비켜서기	갈등상황을 멀리하고 거리를 둠	굳이 친해지려고 노력 하지 않음
		같이 있는 시간을 없앴
		가족이 아닌 주변사람들을 의지함
	참고 버티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티 내지 않음
		갈등상황에서 일부러 저 줌
		독립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버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각	친해지기 위해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함
		갈등해결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음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함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
	나를 보는 눈으로 서로를 보기	서로가 비슷한 처지라는 동질감을 가짐
한 단계씩 찾아가는 '진짜 형제'의 자리	친구를 사귀듯 형제를 사귀	의붓형제도 나와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함
		장난을 치며 친해지려함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함
	가족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찾음	내가 '먼저' 말하고 행동함
		가족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
		형제 사이를 조율함
		친부모와 의붓형제 사이를 중재함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	가족들에게 의붓형제의 입장을 대변해하고 공감해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지속함
		'친형제'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대함
		가족이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된다고 생각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의붓형제와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당분간 참고 버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화를 최소한 동생들한테는 표현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제 친 부모님이랑이라도 뭔가 화가 날 때 적당히 전달을 해야 돼... 적당히 털어놔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하

는 거죠.. ” (참여자 4)

“그때는 솔직히 저도 회피를 했어요. 그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회피를 했었고 그냥 빨리 공부해서 집 뜨자 이 생각했어요. 그거로 그냥 버텼어요. 그냥 동생한테 말을 저도 안 걸었고 그냥 아빠 여자친구. 아빠랑 어디를 나가시면 동생 좀 봐줘라 했을 때 그냥 진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밥 차려주기. 그 이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최대한 에너지를 안 섞고 싶어서 그냥 그랬어요.” (참여자 1)

범주 5: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 범주는 참여자들이 의붓형제와 맺는 관계에서 행동의 변화 이전에, 의붓형제와 맺는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기존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이 범주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각’,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 ‘나를 보는 눈으로 서로를 보기’라는 세 가지 주제목을 포함한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각. 연구의 참여자들은 의붓형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혈연관계나 정서적 애정에 기반한 친구관계와는 다른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문화와 가치관, 성격의 차이가 당연한 상대방과 어느 날 갑자기 ‘친형제’처럼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의붓형제 관계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

는 작은 것부터 공유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혼가정이라고 불행함을 느꼈지만 재혼가정이 되면서 또 완벽한 가정이 있다고 느꼈던 것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노력이라고 이해하고 해본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노력을 조금만 하면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가면서 태도를 만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뀐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6)

“약간 급하게 생각 안 하는 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춘기 때 만났던 청년 때 만났든 약간 예민한 시기 때 서로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눈치 좀 잘 봐가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거더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뭔가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약간 시간을 갖는 거죠.. 갑자기 막 밥 먹으러 막 나오라 하는데 혼자 먹을게 이려고 안 나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기 때문에...” (참여자 4)

“솔직히 이렇게 살면서 가족이 이렇게 많으면 좋은 날도 분명히 있지만 짜증난 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그냥 밥 먹고 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

있잖아요. 그냥 시간의 흐름이 좀 도와주는 거지... . . . 좀 지내다 보면은 좀 끈끈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물며 좀 성격이 안 맞아도 그래도 같이 지내다 보면 미운정도 들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이제 재혼을 하셨을 때 제가 18살 17살 이됐고. 이 친구는 16살, 17살 이렇게 됐었는데 그냥 둘 다 성인이 됐을 쯤 3년에서 3년 반이 지났을 때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돼서 뭔가 서로 눈치가 좀 생기고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충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친구가 20살이 됐을 때쯤 이제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 부모의 재혼이라는 사건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다양한 변화와 적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와 적응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갈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어려움 역시 이러한 새로운 가족에의 적응에 있어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갈등이 있어도 괜찮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들 역시 비난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오히려 의붓형제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게 하는 너그러움이 되었다.

“절대 도움 안 되는 건, 무작정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재혼가정이니까 서로 생활 해온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무작정 막 이렇게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물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더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느낌인 거고 . . .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마냥 너무 서운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소외감을 느낀 게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그렇게 다르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잘 되면 이상하잖아요.” (참여자 3)

“지금도 물론 (의붓언니의) 성격은 천성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화를 내봤자 언니도 좋지 않다는 거를 서로 알게 되면서 화내는 빈도도 줄었고, 조금 언니도 성격을 조금씩 바꾸고 저를 이해하고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나를 보는 눈으로 서로를 보기. 연구 참여자들은 의붓형제를 보며 때로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각자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랐고, 성격도 관심사도 다르지만, 부모의 이혼 혹은 사별과 재혼 과정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낯설고 어색한 형제를 만났다는 것도 공통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과 과업을 비슷하게 겪은 의붓형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감정들을 의붓형제는 알고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붓형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의붓형제를 미워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이는 추후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의붓동생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건 이제 아버지가 호통 치실 때 동생도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아 뭔가 그걸 보니까 제가 그런 슬픈 감정을 느껴봤으니까 동생도 그만큼 크진 않겠지만 비슷하겠구나.. 그럼 나라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럴 때 아무도 옆에서 안 도와줬던 게 외롭다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각자 이제 학교 끝나고 가면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저녁도 같이 잘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어색하다가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저희한테 친동생처럼 대해주니까 저희도 이제 같이 친오빠처럼 다가가게 되고.. 오빠도 우리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비슷하구나.. 내가 오빠한테 동생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참여자 7)

범주 6: 한 단계씩 찾아가는 ‘진짜 형제’의 자리. 한 단계씩 찾아가는 ‘진짜 형제’의 자리 범주는 참여자들이 의붓형제를 ‘진짜 형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 단계씩 노력했던 행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는 ‘친구를 사귀듯 형제를 사귀’, ‘가족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찾음’,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라는 세 가지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친구를 사귀듯 형제를 사귀. 연구의 참여자들은 의붓형제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처음 만난 친구를 사귀어 가듯’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공감대를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며, 농담과 장난 같은 애정이 담긴 이야기를 건네는 방법들이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어색하고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의붓형제와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뭘 좀 좋아하는 거 같지? 뭘 먹는 거 같지? 뭐 예를 들어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간다던가 그러면 뭘 좋아해? 평소에 뭘 먹어? 이런 거 그냥 물어보고... 처음에는 이제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어색함은 싫었고 그리고 어색함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친해지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인데 둘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을 때는 친해지되 기회가 없을 때는 도망치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거를 재미있어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관심 있어 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참여자 4)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한다거나 만화를 같이 본다거나. 그냥 뭐 그냥 진짜 간지럽히고 논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서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같이 잘 놀아줬어요. 나중에는 (의붓동생이) 먼저 갈

이 놀자고 할 정도로 같이. 너무 유치한 데. 그냥 술래잡기 이런 거나 배개 싸움이나 계속 간지럽히기 이런 것들이요. 제가 사촌들 중에서는 제일 거의 막내여서 사촌 언니들이 저를 그렇게 놀아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고 제가 그럴 아기들을 대할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약간 새롭고 괜찮았어요.” (참여자 1)

가족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찾음.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재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위치와 역할의 적응은 의붓형제와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관계 안에서 스스로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꺼이 맡았다. 친부모와 의붓형제 사이를 중재하거나, 의붓형제와 친형제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의붓형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갔다. 의붓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형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동기 역시 이들에게 책임감을 주었다.

“뭔가 모범 되는 형. 동생한테 약간 도움 되는 형. 뭔가 본받을 만한 형.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서 약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애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결국 우리 가정의 어떤 좋은 리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약간 형제들의 공부, 학습 능력 향상에 있어서 스노우볼을 제일 먼저 굴려가야겠다 책임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참여자 4)

“내 마음속에서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둘을 불러가지고 손 잡아. 화해 해 약속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울인데 이제 중심추가 굉장히 가벼우면 한쪽으로 휩 기울었다 휩 기울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중심추가 무거우면 어느 정도 기울어도 한 뼘 1, 2kg 차이가 나도 이제 뼘 한쪽으로 확 안 기울여지니까. 무거운 중심 추의 역할을 부모님도 해줄 수 있겠지만 일단 의붓형제가 이렇게 저처럼 3명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뭔가 만이가 그런 중심 추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 4)

“제가 좀 중간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랑도 얘기를 하고 아버지랑도 얘기를 하고 형이랑도 얘기를 하고 여동생들이랑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 같은 문제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가족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여동생들에게 이런 불만이 있다고 예를 들면 여동생들은 또 다른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서로의 편을 들어주면서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참여자 8)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 연구 참여자들이 의붓형제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가족’과 ‘형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중요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된다.

의붓형제를 생각하고 대할 때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였고,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가족이라면,’ 혹은 ‘친형제라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서로를 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약간 가족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어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우리 이제 같이 살 거고, 살면서 또 이혼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족이고 누가 뭐라 해도 난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부모님으로서 보호해 줄 거고. 너도 뭐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 . . . 의붓형제이긴 한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형제니까 어... 진짜 가족처럼... 진짜 가족이 맞기는 한데 웃긴 말이긴 한데 진짜 찐가족처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제 일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런 거 있는 거죠.” (참여자 3)

“제가 집에 진짜 건담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선반에 건담 세워서 유리문으로 딱 닫아서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저거 집가서 다 부숴 버려야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읽고 씹었어요. 그냥 또 오빠가 그러려니 하는 거죠. 좋게 반응하면 또 좋게 받아주고, 쓸데없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감정 낭비할 만한 건 흘러버리게 됐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요. 그냥 친형제처럼? 그냥 그래 그래라. 살짝 이런 느낌.” (참여자 5)

“얼만큼 진심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무조건 나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좋다고 하고 싫을 때는 싫다고 솔직하게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한 일반적 구조기술

일반적 구조 진술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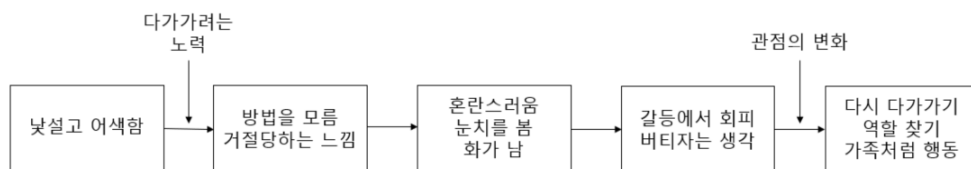


그림 1. 재혼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의붓형제 관계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술하기 위해 상황적 구조진술에서 정리된 주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고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구조진술을 토대로 재혼가족 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의 구조를 통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청소년기 시절 부모님의 재혼을 경험하며 갑작스럽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과 그로 인한 ‘형제’란 가장 먼저 낯설고 어색한 상황으로 다가왔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친해져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새로 형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자신 스스로에게도 어색한 일이었다. 이러한 낯선 상황에서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자주 벽에 부딪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의붓형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부족했지만, 관심사가 다르고 성격도 다른 형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또한 어렵게 말을 걸거나 함께 하자고 요청했을 때 형제의 무반응, 무관심으로 인해 거절당한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더욱 깊어졌다. 부모의 재혼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역동이 생기고,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나의 몫과 나의 자리였던 것도 더 이상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의붓형제가 생기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의붓형제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의붓형제와 부모님 사이에 원하지 않게 엮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의붓형제와의 관계에 부모님이

엮이면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장녀에서 셋째가 되기도 하고, 항상 ‘동생’이었지만 갑자기 누군가의 ‘오빠’가 되기도 하였다. 가족 내에서 나의 자리와 위치가 바뀌는 경험 역시 이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과업이 되었다.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붓형제 관계에서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과 새롭게 생긴 많은 갈등과 과업은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에게 다양한 정서 경험을 불러일으켰다. 적응해야 하는 사람, 상황, 관계와 가족 내 자리와 역할의 변화는 많은 부분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가져왔다. 낯선 가족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힘듦을 알아줄 것으로 예상했던 친부모가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중재를 해주지 못한다고 실망했고, 의붓형제와 차별 대우받는다고 느껴질 때 화가 났다. 내가 우선이었던 부모의 관심부터 내가 가진 것까지 모두 나누어야 하는 경쟁자는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의붓형제의 행동이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부모의 재혼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정서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 의붓형제들에게 거절을 넘어 배척감을 느끼게 될 때면 새 가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새로운 과업에 대한 어려움과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는 청소년이었던 재혼가족 자녀들에게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큰 경우에 잠시 갈등상황과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

도 하나의 출구가 되었다.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친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갈등이 생길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대신 나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였다.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참거나 혼자 삭히고, 버티고 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갈등을 무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접 부딪히면서 다시 노력하게 만든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의붓형제 관계를 바라보려는 노력과 연결되었다. 새로 학년이 바뀔 때 친구를 사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모르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더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조금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쌓아가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형제끼리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함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분노와 질투, 서운함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감정이라고 여기며 스스로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했다. 나와 상대방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의붓형제를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였으며, 나와 비슷한 감정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힘겨운 과정에 같이 서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가족’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족의 해체와 그로 인한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가족의 소중함 역시 절감하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잘 겪어내면서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기억하였다.

이처럼 나와 의붓형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서로의 경험에 대한 타당화,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은 의붓형제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시도하고 노력하는 힘이 되었다. 조금한 마음을 빼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형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게 하였다. 사소한 관심이나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제끼리 칠 법한 장난으로 형제를 사귀어 가기 시작하였다.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자 하였고, 반응을 기다려주기도 하였다. 의붓형제와 함께 구성되는 새로운 가족에서 나의 역할과 위치도 다시 찾고, 의붓형제와 친부모, 친형제와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함께 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의붓형제의 역할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였다. 긍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도 진솔하게 나누고, 친형제라면 대했을 태도와 행동으로 의붓형제를 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 가족’을 이루는 의미를 스스로 부딪히고 애쓰면서 경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 관계형성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어떻게 해당 어려움에 대처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부모의 재혼으로 의붓형제가 생긴 성인자녀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내용을 Giorgi의 현상학

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혼가족 자녀들의 의붓형제 간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의 구조와 의미는 총 6가지의 범주, 15개의 주제묶음, 43개의 주제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의붓형제를 만나게 된 자녀들은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부모의 갑작스러운 재혼은 그 자체만으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안정미, 안권순, 2012; Landon, Ganong, & Sanner, 2022), 특히 의붓형제를 가진 복합재혼가족이 더 많은 어려움과 적응의 힘들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김효순, 하춘광, 2010).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성별이 다른 의붓형제가 있을 때 집에서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작은 생활양식의 불편함부터 다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위축감과 거절감, 그리고 의붓형제와 직접 갈등이 생기는 경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정서적·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재혼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고은영, 서영석, 2012; 김인정, 박승민, 2019; 이남순, 김명찬, 2020) 역시 재혼 가족 자녀들에게 의붓형제의 존재와 그 적응에 대한 외부적인 자원을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의붓형제와 만나게 되었을 때 낯섬과 어색함뿐 아니라, 경쟁심과 거부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 또한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고, 경쟁심과 질투를 느끼기도 하였으며,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성과가 없을 때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의붓형제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한다는 조급함과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혼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재혼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고은영, 서영석, 2012; 구자경, 2016; 박경례, 박재연, 2021; Ganong & Coleman, 1993)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복합재혼가족 자녀들의 정서적 건강에 대한 탐색과 관심이 보다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친형제였으면 표현했을 감정도 진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고, ‘일을 크게 만들까 봐’ 혼자 억누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참고 버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경험과 부정정서를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변복수와 박승민(2015)은 재혼가정 자녀들이 적응과 수용 이전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회피하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이혼 및 재혼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함, 심리적 고통의 미해결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가족 자녀들의 상담에 있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탐색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혼가정 자녀들이 스스로의 정서를 안전하게 마주 보고, 이러한 정서들을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한 단계로 타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발견한 대처 중, 의붓형제와의 갈등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이 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수용했다는 노력들이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재혼가족 자녀들이 어떠한 정서적 경험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담자의 맥락에서 타당화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하도록 정서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충분한 의사소통,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오히려 가족 간 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김효순, 2016)처럼,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족의 적응과 관계 만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 변화 역시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의붓형제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의붓형제 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은 친부모, 새 부모, 친형제와 이복형제 등 다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 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과 의붓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들과 의붓형제의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따라 재혼가족 자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Gagné, Valiquette-Tessier, Vandette, & Gosselin 2015; Visher & Visher, 2014)나 재혼 후 새로운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새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에 이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이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남동우, 2021)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Ganong과 Coleman(2018)의 제안에 더해 친부모나 다른 형제관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을 때 의붓형제 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의붓형제 자매에 대한 차별이 재혼가족 자녀가 의붓형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는 김유나(2010)의 연구나 친부모와의 경계선이 의붓형제와의 경계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김연옥(2014)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의붓형제에 대한 불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거나(참여자 4, 5) 삼각관계를 형성할 때(참여자 1, 7), 부모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때(참여자 5, 7) 재혼가족 자녀들은 의붓형제와의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나(참여자 5), 자신에게 친자식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경우(참여자 3, 8)에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을 봐서라도 새로운 형제자매’와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친부모가 아닌 새 부모가 보내주는 이해와 다가가려는 노력, 친자식처럼 대하려 애쓰는 모습은 자녀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형제 관계 유지 동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 부모의 차별 없는 대우와 관심이 의붓형제자매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제안(Visher, Visher, & Pasley, 2003)을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가족 부모 교육과 상담에서는 재혼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단순히 부모-자식 관계를 넘어 자녀들의 형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의 차별적이지 않은 태도를 강조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게 돕는 상담개입이 진행될 수 있다. 가족상담에서 삼각관계란,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유숙, 2016).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해체와 재혼, 적응 과정에서 경험했던 불안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갈등에 대한 불안에 공감하면서 불안을 건강하게 대처하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삼각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가족상담 전략(Bowen, 1993) 역시 중요한 상담개입이 될 수 있다.

셋째, 재혼가족 자녀들은 새로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역할과 위치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혼가족 자녀들이 가족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제언(지승희 등, 2012)이나 재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형제 서열 등의 지위 변화가 이들의 역할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김연옥, 2014)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외동이었다가 갑자기 맏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막내였다가 중간 자녀의 위치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맏이의 자리를 갑작스럽게 생긴 오빠에게 넘겨주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고(참여자 5)’, ‘내가 외동으로 자란 건지, 막내로 자란 건지 헷갈리기도 하였다(참여자 6).’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족경계 혼란’이라고 하는데

(Boss, 1987; 고은영, 서영석,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 결과는 재혼가정 자녀들이 형제자매 위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가족경계 혼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이로써, 둘째로써, 혹은 막내로써 자리해왔던 형제 위치의 변화는 가정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뿐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명료화하는 발달과업에 있기 때문에(Erikson, 1980), 새로운 가족 역할과 위치로 오는 혼란감 역시 정체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기존의 특권과 역할, 지위의 재조정은 기존의 권한과 행동을 더 이상 쓸모없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제언(Rosenberg & Haial, 1985)처럼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지금까지의 역할과 관련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제자매 위치와 가족 내의 역할은 단순히 역할 업무에 대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나아가 성격형성과 성인기 이전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최인희, 김현주, 2015), 많은 재혼 가족의 불분명한 위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적응의 어려움을 보다 심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김유나, 2010), 복합재혼가족의 자녀 상담에서는 의붓형제의 존재로 인해 변화하는 가족 내 위치와 역할변화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새롭게 구성된 가족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료히 하고 그 안에서 혼란감을 이해하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역할을 확인하는 가족상담 개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부모의

재혼을 경험하여 의붓형제라는 관계 과업을 가진 자녀들에게 새로운 관계 형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안내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에게 의붓형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관계와는 다른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조차 몰랐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재혼가족 자녀들에게 의붓형제 관계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내가 필요한 관계이다.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경험하는 갈등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지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제언(권예원, 2017; 김형민, 이은경, 2016; 고은영, 서영석, 2012; 김효순, 하춘광, 2010; 변복수, 박승민, 2015)처럼 상담자는 이들과의 상담에서 적극적인 지지체계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재혼가족 자녀들이 기대감과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는 몰입기(Papernow, 1998)에 있다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재혼가족 자녀들이 의붓형제를 ‘의붓형제’라고 부르기보다 ‘형제’라고 부를 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Anggita et al., 2021)나 의붓형제 관계에서 진솔성이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Lopez & Rice, 2006)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고한 구체적인 전략들, 예를 들어, 의붓동생과 정보를 교류하거나, 자기 개방을 시도하는 노력(참여자 4, 7),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참여자 1, 5), 의붓형제의 준비도와 욕구를 탐색하는 것(참여자 3, 4) 등의 노력도 하나의 활용 가능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재혼가족 자녀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서 자각을 훈련하는 것,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 이면의 욕구와 바람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긍정정서 뿐 아니라 부정정서를 비난하지 않고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치형 의사소통을 교육하는 것, 갈등상황에서 정서에 몰입되지 않고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구체적이고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가족들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상담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혼가족 자녀들이 현재 의붓형제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한 대처방법에는 인지적인 변화에의 노력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갈등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고, 의붓형제라는 대상을 정서적 미움에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가족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리하고 기억하며 그 틀에서 자신과 형제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문제 상황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갈등해결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유용한 대처기술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재혼가족 자녀들의 인지적 관점 변화에는 ‘가족’의 개념이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은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중요한 안정감의 토대가 되고, 가정과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정선영, 2021). 특히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이미 가족의 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족의 개념과 의미는 더욱더 이들의 정서

적·행동적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권예원, 2017; 이남순, 김명찬, 2020). 재혼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재혼한 부부들이 ‘삶에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두 번 다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처럼 가족의 해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각이 갈등 해결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인복, 김용수, 2020; 장현정, 2010).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족 해체 경험과 그로 인한 가족 유지에 대한 바람, 그리고 그로 인한 노력이 재혼 부부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구성원이 가지는 ‘한 가족(we-ness)’ 신념체계가 재혼 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제언(이은영, 김수진, 2021)의 제언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가족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자 한 참여자들의 대처는 재혼가족 자녀들의 형제관계 상담을 위한 방향성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의붓형제와의 관계에서의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되, 부정 정서에 몰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관계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개입이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재혼자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라는 통계에 따르면,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고은영, 서영석, 2012), 재혼가족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과 그 대처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혼자녀 연구들로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 이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혼가족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구자경, 2016; 변복수, 2014)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여 재혼가족 성인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청소년기 부모의 재혼과 의붓형제와의 어려움을 경험했으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재혼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대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언(권예원, 2017)에 답하는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혼가족 자녀의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의붓형제 관계에서의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재혼가족 구성원들은 재혼가족의 유형에 따라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모-자녀 연구였다(김형민, 2015; 고은영, 서영석, 2012 등). 재혼가족에서 의붓형제의 존재로 인한 갈등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을 탐색해야 한다는 권예원(2017)의 제언과 재혼가족 형제관계는 의붓형제인지 이복형제인지에 따라 관련 경험이 다를 수 있다고 제언한 김인정과 박승민(2019)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의붓형제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탐색의 부재는 의붓형제 관계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의 부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형제관계는 상대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 부모관계와는 다르게 본질상 평등함을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모-자녀와의 대처방안을 형제관계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전은주, 이영순, 2008)는 제언에 기초했을 때, 의붓형제 간의 관계 대처방안은 의붓형제와의 관계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탐색하지 못한 의붓형제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처방안을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재혼가족 자녀들의 의붓형제 관계 어려움과 대처는 재혼가족 자녀들을 위한 가족상담과 개인상담에 직간접적인 방향성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혼가족 자녀들의 증가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기초했을 때 이들을 위한 상담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어려움의 종류는 이들을 이해하고 사례개념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지 상담전략과 개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재혼을 경험한 성인 자녀들의 의붓형제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대처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 성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주로 20대 초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경험이 전체 성인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어떠한 발달단계에서 경험하였고,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여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등에 따라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달라지고(구자경, 2016; 변복수, 2014) 경험의 의미와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20대 초반 이후 자녀의 인식변화와 성장과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8명 중에 6명이 여성이었다.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과 그 대처의 종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창식, 김윤정, 2004). 김효순과 하춘광(2010) 역시 재혼가족의 여자자녀가 남자자녀에 비해 가족 안에서 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재혼가족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제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을 충분히 포함한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관계 어려움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재혼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라 보다 필요한 개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붓형제가 있는 복합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같은 복합재혼가족이라고 해도 의붓형제가 몇 명인지, 의붓형제로 인해 가족 내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붓형제와의 관계의 질은 어떤지 등의 여러 가지 하위체계에 따라서, 개인이 의붓형제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김연옥, 2014). 따라서 복합재혼가족 형제구조와 하위체계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자원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현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의붓형제와의 최소 동거기간, 부모 재혼 시 참여자의 발달단계, 현재 연령대 등을 가능한 동일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 재혼 시 연령이 14살에서 19살로 편차가 있고, 의붓형제와의 동거기간 역시 2년에서 9년까지 차이가 있다. 형제자매 관계가 같은 청소년기라고 할지라도 초기 청

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서 다를 수 있고(전 귀연, 2006), 재혼가족의 동거기간에 따라 관계의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김형민, 이은경, 2016)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참여자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차에 따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경험을 이해하는 노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영, 서영석 (2012). 재혼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97-419.
- 구자경 (2016). 한 재혼가정 성인자녀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07-226.
- 권예원 (2017).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갈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혁출 (2014). 재혼모가 경험하는 재혼가족 갈등극복에 관한 현상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다애, 조은숙 (2019). 재혼가족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연구 - 계부모의 성차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7(4), 599-620.
- 김연옥 (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재혼모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171-195.
- 김연옥 (2014). 재혼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분석-경계와 역할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4, 31-55.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나 (2010). 한국 재혼 가족 자녀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2016). 가족상담(3판). 서울: 학지사.
- 김인복, 김용수 (2020). 재혼 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연구: 재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37-59.
- 김인정 (2017). 이복형제와 가족 되어 살아가기.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정, 박승민 (2019). 이복형제와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상담학연구, 20(2), 125-149.
- 김종경, 양영희 (2011).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 성인간호학회지, 23(1), 50-59.
- 김형민 (2015).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민, 이은경 (2016).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청소년학연구 23(2), 243-269.
- 김효순 (2006). 재혼가족의 양육태도 유형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단일호), 57-87.
- 김효순 (2012). 재혼가족 적응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05-1032.
- 김효순 (2016).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재혼자

- 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39-269.
- 김효순, 엄명용 (200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0), 1-27.
- 김효순, 하춘광 (2010).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67-101.
- 남동우 (2021). 재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상은 (2020). 중년기 성인의 형제자매 관계의 질이 심리적 안녕감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례, 박재연 (2021). 재구성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재혼을 경험한 성인의 관점에서. 가족과 가족치료, 29(1), 191-220.
- 박선영 (2015). 재혼 초기 모친과 동거하는 여중생의 가족생활갈등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6(1), 285-304.
- 박진희, 박지선 (2016). 청소년의 형제자매유형에 따른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1-30.
- 박희정, 변상해 (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36-252.
- 백광렬, 이상직, 사사노 미사에 (2018).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한국사회학, 52(4), 115-159.
- 변복수 (2014). 재혼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복수 (2014). 재혼에 관한 연구 경향분석: 2000년~2013년 발간된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4(1), 83-101.
- 변복수, 박승민 (2015). 재혼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721-748.
- 서미정, 김병석 (2019). 부모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결혼생활 어려움 극복과정. 상담학연구, 20(5), 333-357.
- 안정미, 안권순 (2012). 청소년의 분노정서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267-292.
- 양성은 (2008). 부모 사별에 따른 대학생의 상실경험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6(5), 39-49.
- 우현주 (2012). 대학생의 부모 재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애 (2002).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순, 김명찬 (2020). 재혼가족 자녀의 분리 개별화 경험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6(3), 601-636.
- 이은영, 김수진 (2021). 국내 재혼관련 연구 동향분석: 2008~2019년 발간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99-121.
- 이창식, 김윤정 (2004).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중재효과: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183-213.
- 이혜원, 주영아 (2020). 비혼여성의 결혼가치관 관련요인 탐색: 결혼이미지, 심리적 적응,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3), 1133-1148.

- 장현정 (2010).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재혼관계의 구성 과정 - 이혼 후 재혼한 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2(2), 55-93.
- 장휘숙 (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 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33-48.
- 장휘숙 (2009). 두 자녀 가정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 1-14
- 전귀연 (2006). 형제관계. 서울: 신정.
- 전은주, 이영순 (2008). 형제자매관계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13(1), 213-234.
- 정선영 (2021). 가족가치관 변화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 부모의 기대충족과 전통적 성역할관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7(1), 55-79.
-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고은 (2011). 재혼가족 자녀의 갈등과 적응에 대한 성경적 상담.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오혜영, 이현숙 (2012). 사이버상담 사례에 나타난 재혼가족 여자청소년의 어려움. *청소년상담연구* 20(1), 107-126.
- 최인희, 김현주 (2015). 출생순위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1961-2015).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8(2), 67-92.
- 통계청 (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http://kostat.go.kr> 에서 검색.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http://kostat.go.kr> 에서 검색.
- Adler, A. (2009). 인간이해 [Menschenkenntnis] (라영균 역). 서울: 일빛. (원전은 1927에 출판)
- Anderson, E. R. (1999). Sibling, half sibling, and stepsibling relationships in remarried famil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4(4) 101-126.
- Anggita, D. R., Widayanti, C. G., & Dewi, K. S. (2021). Understanding the step-sibling relationship through bibliometric-visualization and narrative analysi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sychological Studies*, 236-243.
- Bank, S. P. (1997). *The sibling bond*. New York, NY: Basic Books.
- Boss, P. (1987).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Family stress*. (pp. 695-723). Springer, Boston, MA.
- Bowen, M. (1993).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Casework*, 66(5): 287-292.
-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3), 634-650.
- Crosbie-Burnett, M., & Giles-Sims, J. (1994). Adolescent adjustment and stepparenting styles. *Family Relations*, 43(4), 394-399.
- Dunn, J. (2007). Siblings and socialization. In J.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309-327). New York: Guilford.
- Dunn, J., O'Connor, T. G., & Cheng, H. (2005).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among their different parents: Mothers, stepfathers, nonresidential fathers, and nonresidential stepfa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223-234.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 New York: Norton.
- Gagné, A., Valiquette-Tessier, S. C., Vandette, M. P., & Gosselin, J. (2015). Reflecting on the co-parenting experience of couples living in established stepfamilies: A phenomenological inquiry. *Zeitschrift Für Familienforschung*, 10, 101-122.
- Ganong, L. H., & Coleman, M. (1993). A meta-analytic comparison of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of stepchildren to children in other family structur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9(3-4), 143-163.
- Ganong, L. H., & Coleman, M. (2018). Studying stepfamilies: Four eras of family scholarship. *Family Process*, 57(1), 7-24.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nzales, J. (2009). Pre-family counselling with blend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0(2), 108-123.
- Gosselin, J., & David, H. (2007).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8(1/2), 29-53.
- Howe, N., Rinaldi, C. M., Jennings, M., & Petrakos, H. (2002). No! the lambs can stay out because they got cozies: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sibling conflict, pretend play, and social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5), 1460-1473.
- Landon, O., Ganong, L., & Sanner, C. (2022). Stop going in my room: A grounded theory study of conflict among stepsiblings. *Family Relations*, 71(1), 256-27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Sage.
- Lopez, F. G., & Rice, K. G. (2006).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62-371.
- McHale, S. M., Updegraff, K. A., & Whiteman, S. D. (2012). Sibling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5), 913-930.
- Papernow, P. L. (1998). *Becoming a stepfamily: Patterns of development in remarried families*. Gestalt Institute of Cleveland Press.
- Patton, M. (2015). *Pragmatism and generic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 Plewes, P. S. (2002). *The presence of siblings and stepsiblings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stepfamilies*. University of Miami.
- Portnoy, S. M. (2006). The effects of divorce on adults, part 1. *American Journal of Family Law*, 20(2), 73-79.
- Rosenberg, E. B., & Hajal, F. (1985). Stepsibling relationships in remarried families. *Social Casework*, 66(5), 287-292.
- Skeen, P., Covi, R. B., & Robinson, B. E. (1985). Step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suggestions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2), 121-125.
- Visher, E. B., Visher, J. S., & Pasley, K. (2003). Remarriage families and stepparenting.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 153-175.
- Visher, E., & Visher, J. (2014). Stepparenting: blending family. *Stress and the Family: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 133-146
White, L. K., & Riedmann, A. (1992). Ties
among adult siblings. *Social Forces*, 71(1),
85-102.

원 고 접 수 일 : 2022. 05.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8. 26

게 재 결 정 일 : 2022. 09. 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ifficulty and Coping Experience of Forming a Relationship with Step-Siblings in Adult Children Who Experienced Parent Remarriage in Adolescence

Dongshin Bae

Keimyung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ounselor

Ara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ies faced by adult children who experienced parents' remarriage in adolescence, forming relationships with stepsiblings. Data were collected via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adult children with stepsiblings from remarried families.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the relevant phenomenon was derived from a total of six categories, 15 theme clusters, and 43 topics. Specifically, categories were composed of followings; the experienced difficulties consisted of 'being hard to get close', 'having non-existent conflicts', 'having new but not-on-my-side siblings', and the coping experiences consisted of 'watching things with new perspectives', 'staying away from conflicts', 'being 'real brothers' step by step'. Finally, this study revealed the structure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forming relationships and coping experiences among stepsiblings of adult children in remarried families. According to this result,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 the counseling field were discussed.

Key words : Remarried Families, Stepsibling Relationship, Cop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